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교안 작성 : 이주희
글 우현옥 | 그림 최미란
키워북스 | 9,000원 | 초등 중학년

책 소개

부모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는 요즘, 삼시세끼를 꼭꼭 챙겨 먹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한 끼라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밥을 먹기란 정말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TV나 신문, 스마트폰을 보는 등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일도 많지요.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식구'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가족끼리의 식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야 할 밥상머리가 썰렁해져 가는 만큼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 마음도 점점 더 삭막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밥 먹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가장 훌륭한 교실은 바로 가족이 함께 도란도란 둘러앉은 밥상머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리네 가족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밥상머리에서 아침을 시작한다면 좋겠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목표

1. 평소 밥상머리 풍경을 돌아보고, 밥상머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며 요약할 수 있다.
3. 명문가의 밥상머리 교육을 알아보고, 우리 집 밥상머리를 지키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생각 열기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시간

오늘 아침, 우리 집의 밥상머리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 모두 함께 둘러 앉아 밥 먹는 풍경을 떠올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요즘에는 아빠 엄마는 직장일로, 아이들은 학원이나 독서실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 먹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TV나 신문, 스마트폰을 보는 등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일도 많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제시된 조건으로 여러분의 평상시 밥상머리 풍경을 이야기해 보세요.

1. 가족이 집에서 다 함께 식사하는 때는 주로 언제인가요?



2. 보통 어떤 반찬으로 식사를 하나요?



3.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들은 주로 어떤 일(행동)을 하나요?





책 속에 등장하는 ‘안보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뒀다! 땀기 동자 	청학동에 사시는 큰아빠와 동생 수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 한대요. 집수리 때문인데요, 엄마는 직장을 다니셔서 더욱 비상인 거죠. 더군다나 큰아빠는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서 우리 가족의 머릿속은 복잡복잡했어요.
바쁘다, 바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맛있는 건 내가먼저 	
다 같이 돌아, 식당 한 바퀴 	
행복 밥상 차리기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는 엄마를 보니 어젯밤 일로 화가 나신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아빠가 저녁은 우리가 준비해야겠다고 하셔서 큰아빠와 나, 수리까지 모여서 엄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했어요. 다행히 엄마는 화가 풀렸답니다.
아침이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 만들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아마도 보리처럼 ‘혼자서 먹는 밥’일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일 테지요. 지금부터 우리 집 밥상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음 제시된 사항에 알맞게 답을 정리해 보세요. (29쪽 참조, 짧은 문장은 적고 긴 문장은 읽으면서 핵심어 위주로 정리합니다.)

1. 1단계 준비해요!



2. 2단계 모여요!



3. 3단계 밥상을 차려요, 다 같이!



4. 4단계 함께 모여요, 즐겁게!



5. 5단계 훈훈한 마무리



명문가의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예절은 세계적인 명문가나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교육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미국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와 조선시대 명재상으로 이름난 서애 류성룡 선생의 밥상머리 교육을 살펴봅시다. 다음 제시된 사항에 알맞게 답을 정리해 보세요. (37쪽 참조, 짧은 문장은 적고 긴 문장은 읽으면서 핵심어 위주로 정리합니다.)

1. 케네디가

2. 류성룡가

3. 유대인들

4.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

가족의 비슷한 말인 ‘식구(食口)’라는 말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부모와 자녀, 넓게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교류의 자리이므로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식사 예절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 예절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예절입니다. (47쪽 참조, 짧은 문장은 적고 긴 문장은 읽으면서 핵심어 위주로 정리 합니다.)

1. 식사하기 전에는...



2. 식사하는 중에는...



3. 식사를 한 뒤에는...



우리 집 밥상머리, 우리가 지켜요!

우리 집 밥상머리를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와 부모님이 꼭 고쳐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해요! ‘밥상머리 교육 실천지침 10가지’

위의 ‘밥상머리 교육 실천지침 10가지’ 내용을 61쪽을 참조해서 읽어 보고, 예쁘게 적어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곳에 붙여 놓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족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